

주택담보대출 금리 두달째 오름세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80%로 전월보다 0.10%p 상승... 시중은행, 집단대출 사실상 중단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본격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80%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8월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낸 데 이어 두달째 상승세다.

가계대출 금리는 3.03%를 기록,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저금리 기조는 은행의 대출 금리를 한동안 내림세를 이어왔다.

지난 7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8%로 한달 만에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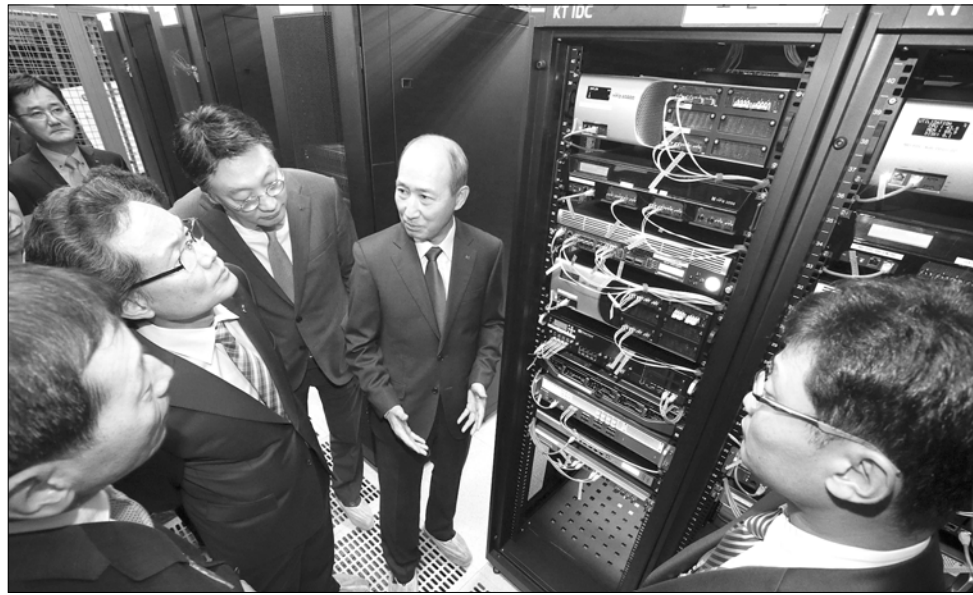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라고 연일 강도높은 주문을 이어가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가 큰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주문을 사실상의 총량관리 조치로 해석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26조3000억원)의 73.4%(19조3000억원)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를 각 금융사별로 분석해 선



평창동계올림픽 데이터센터 개소식 KT는 2016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통신파트너로써 올림픽 사상 최초로 올림픽 전구간에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2016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데이터센터(Primary Data Center)'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4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몇몇 은행들은 3분기부터 대출을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세 잡기에 몰입한 은행들은 한꺼번에 대규모 대출이 발생하는 집단대출부터 조이고 나섰다.

은행들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9월 집단대출 금리도 2.90%로 한달 새 0.11%포인트 올랐다.

8월 발표된 8·25대책 이후 집단대

출에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 은행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굳이 금융당국의 눈치까지 보면서 집단대출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 서울 강남3구와 신도시 등 이른바 노른자 지역 위주로만 중도금대출을 실시하고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8.25 대책 이후 전국에서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사업장 42곳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시행해줄 은행을 찾은 곳은 8곳(19%)에 그쳤다. 이중 시중은행과 협약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 차이만 나고 고객은 은행을 바꾼다”며 “금리를 올리면 개별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조절되겠지만, 대출자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제2금융권)으로 몰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김영란법이 ‘2차 문화’ 줄였다

유흥주점 법인카드 이용 -5.7%... 요식업종 중저가 이동

김영란법 시행 후 2차 문화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카드의 김영란법 시행 전후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요식, 유흥, 골프 등 관련 전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시행전 평일 10일간과 시행후 14일간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이 5.7% 감소했다.

요식업종은 법인카드 이용이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확산됐고 저녁 평균 이용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졌다. 저녁시간대 이용건수를 보면 오후 9시 이전에

결제한 비중이 높아졌다.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주변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5.5% 늘었다. 법인 카드를 통한 접대가 줄어들어 따라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회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택시의 경우 오후 7시대의 매출이 타 시간 대비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한카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2차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접대문화가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되는 양상”이라며 “저녁 시간대 집을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와 쇼핑 문화 관련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기불안에 회사채 두달 연속 순상환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가 두달째 상환한 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안과 구조조정 여파로 투자는 줄고 외부에서 자금도 조달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1조6180억원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기조가 유지됐다.

차환 목적의 증가세를 포함해 올 들어 9월까지 발행한 일반 회사채도 1년 전보다 11.2% 줄어든 83조8854억원

어치로 집계됐다.

9월 한 달간 발행한 전체 회사채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5140억원(20%) 증가했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금융채는 전월에 비해 4785억원어치(8.5%) 감소했다. 은행채와 금융지주채 발행은 증가했고 기타금융채 발행은 40% 이상 감소했다.

주식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 9월 현재 주식 발행규모는 5조13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뉴시스

9월 항공이용객 전년 대비 17.3% 증가

국제선 21.7% · 국내선 8.4% 증가... 저비용항공사 높은 증가세

9월 항공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862만명을 기록했다. 국제선, 국내선 모두 늘었는데 특히 공급력이 확대된 저비용항공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전년 동월보다 각 21.7%와 8.4% 증가했다. 항공화물물은 9.5% 늘었다.

국제선 이용객은 509만명이다. 추석 연휴와 저비용항공사 공급력 확대에 이용객이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은 지난해 94만명에서 올해 148만명으로 58.3% 증가했다.

지역별로 대양주(17.6%), 미주(10.1%), 유럽(9.1%) 등 중장거리와

일본(32.5%), 동남아(27.1%), 중국(16.2%) 등 단거리 수요가 모두 증가했다. 이용 공항은 대구(193.8%), 김해(36.3%), 제주(23.5%)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적항공사 중 대형사는 8.1%, 저비용사는 70.8% 증가하며 총 수요의 70.8%를 담당했다. 각 분담률은 대형사 44.3%, 저비용사 20.4%다.

국내선은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공항 기준은 여수(21.3%)와 청주(15.0%)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사는 109만명으로 1.8% 늘었고 저비용사는 153만명으로 13.6% 증가하면서 58.4%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뉴시스

농산물값 상승에... 9월 카드이용액 9.1% ↑

물가상승률 확대 영향... 개인카드 승인금액 7.7% 증가한 43조6000억원

지난달 카드 이용금액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중순부터 시작되면서 소비 수요가 분산됐지만,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출이 늘었다.

27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1% 뛰었다.

민간 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개인

카드 승인금액(공과금 제외)은 7.7% 증가한 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명절 소비수요는 분산됐지만 물가상승률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추석연휴는 9월 하순부터 시작된 반면 올해는 9월 중순부터 시작돼 소비수요가 8~9월로 나뉘었지만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9월 소비지출가는 1.2% 상승했다.

법인카드 승인금액(공과금 제외)은 명절 연휴와 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중개업종과 가전제품 업종의 카드납부 확대가 두드러졌다.

9월 중 부동산중개업종의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7% 증가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만 시범운영되던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 8월말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며 카드사들이 캐시백 이벤트, 인센티브 지급 등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위로 가전제품 업종의 이용실적도 21.5% 증가해 3조원을 찍었다.

반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국산 신차판매 업종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과금을 제외한 평균 결제금액은 3만9915원으로 1년 전보다 6.9% 하락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9월에는 명절 연휴도 끼어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며 “10월 이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야 김영란법의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